

을 聯想할 수 있다.

이 鬼面瓦에서 特히 興味를 끄는 것은 下部中央에 半圓形人面을 實寫的으로 넣고 그 周邊에 雲文等을 配置한 것이다. 顔面은 陰刻으로 極히 拙劣한 戲畫的인 手法인데에 더욱 興味를 들군다. 人面瓦는 日人有 光氏가 慶州 興輪寺址에서 發見한 것이 있을 뿐이며 鬼瓦에 이러한 顔面이 들어 있는 것은 只今까지 그 例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. (慶州博物館藏)

〔註〕 京都大學版 新羅古瓦의 研究 參照

現高一七cm 幅二三·五cm 厚(下端)四·五c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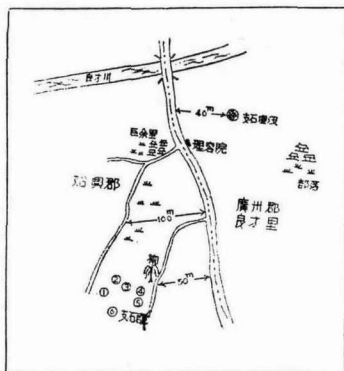
京畿 始興郡內 支石墓

金 武 龍

一九五八年 六月 八日과 一九五九年 四月 五日의 兩次에 걸쳐 始興郡 新東面 良才里와 牛眠里所在 支石墓를 調査하였다.

良才里支石

良才川 南方約 百m 地點에 꽤 넓은 空地가 있어서 잔디밭이 있는 곳 에 支石이 埋沒되었다. 그 分布狀態는 圖面과 같으며 型式은 北方式에 屬한다고 본다. 一號의 蓋石은 不定形橢圓形으로 西側은 地面에 接하였



고 東側이 六·七cm의 높이로 撐石이 받쳐있다. 坐向은 東南向이다. 其他는 一部埋沒되어 構造不明이며 實測值(m)는 다음과 같다.

蓋石長	蓋石幅	蓋石厚
一號 四·五	二·八	〇·四五
二號 二·四五	一·四	不明
三號 三	二·三五	不明
四號 三·六	二·四	〇·七

五號 四號支石의 足石?

六號 二·三 一·九 〇·三

이 支石은 「괴바위」라고 부르며 이는 「고인바위」의 준말이며 이 洞里는 巨餘里인데 「계리」라 俗稱함은 興味있는 일로서 「巨餘」의 「거여」와 「고여」가 語音上 비슷한데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. 洞里에서 年一回 道장祭(山神祭)를 지낸다고 한다.

牛眠里支石

良在里 支石所在地 西南쪽 山麓에 典型的 北方式 支石이 있다. 이 附近에서는 俗稱 「고름장바위」라고 부르며 支石 바로 위에는 屏風같은 바위가 돌러있음은 이상스러웠다. 蓋石長 三m, 幅 三m, 厚 〇·五m이며 地上高는 〇·七m이다. 高 〇·七m의 二個의 定石 밑에는 石室이 있어 長 一·七m, 廣 一·三m이며 坐向은 正南向이다.

資料

◎ 帆船文수기화

張 南 植

今春 慶州 金庚信墓附近에서 發見되었는데 一端에 橫으로 上下二列로 帆船文을 적었는데 上列에 五隻 下列에 六隻이 있다. 그 밑에는 波狀文이 있고 表面에는 波濤文, 菱形文, 裏面에는 布目文이 있다. 아마도 護骨用으로 쓰이던 것이 아닐가 한다.

長 三六cm 厚 二·八cm 幅 二·三五cm 一〇cm

考古美術 卍一ス

◎ 蔚山古墳發掘

國立博物館에서는 蔚山郡 溫陽面 三光里 貴旨部落 송나산에 散在한 約 六·七十基의 古墳을 整理하고 있는데 十月末 現在 臺付長頸壺, 臺付卍, 高杯, 帶狀肥